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 민영기업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북경사무소 오종혁 전문연구원(ojh@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배경: 민영기업 경영난 심화
2.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3.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부채로 인한 은행권 부실, 투자 감소 등으로 경기둔화가 시작되면서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한 제조업분야 중소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됨.

 - 인민은행은 경기둔화에 대응하고자 2018년 기준을 인하를 통해 대출지원 확대를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규모가 작거나 한계상황에 다다른 민영기업은 실적 및 담보조건이 불리해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등 자금난이 지속
 - 2018년 하반기로 갈수록 규모이상 민영 공업기업의 경영실적이 부진해지고, 일부 민영기업의 파산이 이어졌으며, 과도한 세금부담 및 행정규제 등 중국의 경영환경 리스크는 민영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3월 개최된 양회까지 민영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세, 경영환경 개선 등의 지원정책이 발표됨.

 - [금융서비스 지원] 국무원과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인민은행은 민영기업 자금난 해결을 위해 대출비중 확대, 채권 보증 지원, 주식 담보 대출 등의 정책 조치를 잇달아 발표
 - [감세] 재정부는 2020년까지 연 30억 위안 규모의 민영기업 지원 인센티브를 지방정부에 지원하며, 국무원은 2019년 2조 위안 규모의 감세와 제조업(16%→13%)과 교통운수건축부동산(10%→9%)의 부가가치세 인하, 양로보험의 기업 부담률 인하를 결정
 - [경영환경 개선 외] 국가세무총국은 감세, 경영환경 개선, 기업 서비스 강화 등 민영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으며, 공업정보화부와 사법부, 상무부도 관련 지원책을 발표
 - [지방정부] 저장성, 장시성 등은 향후 3년간 각각 5,000억, 3,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베이징과 상하이, 푸젠성, 충칭 등은 민영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기금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일부 지방은 종합 지원정책을 수립하기도 함.
- 민영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대출 상황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으며,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중국정부가 민영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기업채 발행, 금융 실적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단기적으로 대출 상황이 개선됨.
 - 대규모 감세와 세율 인하로 기업 부담이 줄어들면서 일자리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또한 2019년에는 중국 직할시, 성회도시 등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환경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0년에는 전국 도시로 확대할 예정임.

1. 배경: 민영기업 경영난 심화

-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래 생겨나기 시작한 중국의 민영기업은 현재 경제성장과 기술혁신, 고용 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민영기업은 2018년 기준 세수의 50%, GDP의 60% 이상, 기술혁신의 70% 이상, 도시지역 취업의 80% 이상,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¹⁾
- 2017년 말 기준 민영기업 수는 2,700만 개, 개인사업자(个体工商户) 수는 6,500만 명, 등록자본 165조 위안을 기록
- 민영기업은 경공업, 식품, 전자, 기계 등 제조 분야와 전자상거래, SNS, 모바일결제, 공유경제 등 신산업분야 발전을 주도하고 있음.²⁾
- 중국 대표 민영기업으로는 화웨이, 쑤닝, 정웨이국제, 징둥 등이 꼽힘(매출액 기준, 표 1 참고).
 - 2018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은 563억 9,000만 위안이며, 이 중 61개의 기업은 1,000억 위안을 상회함.
 - 2018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 28개의 중국 민영기업이 순위에 포함

표 1. 2018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상위 10곳)

순위	기업명	소재지	분야	매출액(억 위안)
1	화웨이(华为)	광둥성	컴퓨터, 통신 및 기타설비 제조	6,036
2	쑤닝(苏宁)	저장성	유통	5,578
3	정웨이국제(正威国际)	광둥성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	4,917
4	징둥(京东)	베이징시	인터넷 서비스	3,623
5	산둥웨이치아오(山东魏桥)	산둥성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 가공	3,595
6	렌상(联想)	베이징시	컴퓨터, 통신 및 기타설비 제조	3,162
7	헝다(恒大)	광둥성	부동산	3,110
8	귀메이(国美)	베이징시	유통	3,093
9	헝리(恒力)	장쑤성	화학제조	3,079
10	다상(大商)	랴오닝성	유통	2,808

자료: 中华全国工商业联合会(2018. 8. 29), 「2018中国民营企业500强榜单」, <http://www.acfic.org.cn>.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부채로 인한 은행권 부실, 투자 감소 등으로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한 제조업분야 중소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됨.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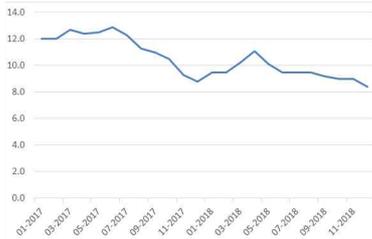
1) 新华社(2018. 11. 2), 「习近平: 在民营企业座谈会上的讲话」.

2) 全国工商联课题组(2018. 12. 30), 「民营经济40年发展历程和经验研究报告」.

3) 중국 제조업 밸류체인 후방산업은 산업집중도가 낮아 악성경쟁이 심한 편이며, 이익률도 낮은 수준.

- 2018년 인민은행은 경기둔화에 대응하고자 4차례(1월, 4월, 7월, 10월) 기준을 인하를 통해 대출지원 확대를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자금이 필요한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 우선 배정⁴⁾
 - 국유기업은 정부와의 관계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규모가 작거나 한계상황에 다른 민영기업은 실적 및 담보 조건이 불리해 대출이 까다로움.
- 2018년 9월까지 중국 기업채 디폴트가 24건을 기록하는 등 다수의 민영기업 도산이 이어지고, 일부 국유기업이 파산한 민영기업의 채권을 인수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진민퇴(国进民退)⁵⁾ 우려도 확산
 - 민영기업 자금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은행창구 대출 확대를 유도하였으나 연이은 디폴트 확산으로 시중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오히려 강화
- 2018년 하반기로 갈수록 규모이상⁶⁾ 민영 공업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며, 자산 대비 부채율과 미수금 평균 회수 기간도 증가
 - 민영 공업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율은 2017년 12월 52.6%에서 2018년 12월 56.4%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미수금 평균 회수 기간은 28.8일에서 41일로 증가

그림 1. 2017~18년 규모 이상 민영 공업기업 매출액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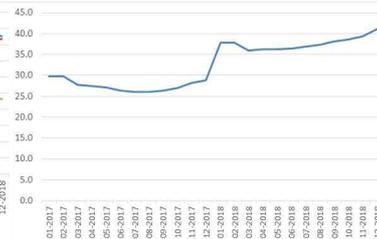
자료: CEIC.

그림 2. 2017~18년 규모 이상 공업 기업별 자산 대비 부채율 추이



자료: CEIC.

그림 3. 2017~18년 규모 이상 민영 공업기업 미수금 평균 회수 기간 변화



자료: CEIC.

■ 또한 과도한 세금부담 및 행정규제 등 중국의 환경 리스크도 민영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세금부담] 중국의 경제 전문지 차이징(财经)은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이 민영기업에 경영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⁷⁾
 -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8년 납세보고」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총 세율은 67.3%(2017년 말 기준)으

4) 중국 인민은행은 매회 대형은행 기준을 각각 0.5%p~1.5%p씩 인하하였으며, 재대출 형식의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 방식을 통해 선별적 자금 지원을 확대함.
 5) 국유기업의 발전을 우선하고, 민영기업의 퇴출을 의미.
 6)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규모의 기업.
 7) 财经(2019. 1. 29), 「民营企业生存环境亟待改善」.

- 로, 그중 소득세(profit tax)가 11.1%, 노무세 48.1%, 기타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지적⁸⁾
- 또한 중국은 기업 사회보험료의 전체 납입비율이 약 40%로 높은 편이지만 그동안은 세무당국과 사회보험센터로 구분되어 있어 실제 징수율이 낮은 편이었으며, 기업들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었음.
 - o 「중국기업사회보험백서 2017(中国企业社保白皮书2017)」에 따르면 기업 중 사회보험료를 기준에 맞춰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비중이 24.1%에 불과하며, 2015년 38.3%에서 2년 연속 하락세⁹⁾
 - 이를 바로잡고자 향후 세무당국 일원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세 납부를 회피해오던 상당수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¹⁰⁾
 - [과도한 행정규제] 공무원 개인의 자유재량권에 의해 기업 생사가 좌우 될 정도로 행정규제가 심하며, 한 개 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별로 순차적 법 집행(序贯执法)을 위해 민영기업을 조사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경영과 생산에 차질을 주고 있음.¹¹⁾
 - o 일부 지방정부에서 환경감찰을 이유로 무조건 영업정지를 시키는 경우(一律关停)도 있는 편임.¹²⁾

2.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 민영기업의 경영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중국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하였으며, 각 부처별로 민영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감세, 기업환경 개선 등의 민영기업 지원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였음.
- 시진핑 주석은 2018년 9월, 동북3성 순방에서 민영기업의 발전 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고, 민영기업의 준수분야 참여 가능성 확대, 경영환경 개선 및 발전 어려움에 대한 연구를 논의 중임을 언급
-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류허(刘鹤) 부총리도 2018년 10월 각각 회의와 인터뷰에서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의 어려움을 중시하고,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언급함.
- 이어 2018년 11월 1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민영기업가들과의 좌담회를 개최하고,

8) 총 세율은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등 자동적으로 납부되는 부분은 미포함.

9) 亿欧(2018. 8. 23), 「三个月后的社保改革, 对企业有何影响?」.

10) 2019년 1월 1일부터 세무기관이 통일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기로 하여 일부 민영기업은 높아질 세금부담을 우려했으나 현재는 관련 인원 부족, 데이터 과다 등의 이유로 기업 관련 세무업무 이관이 지연되고 있음. 网易财经(2019. 1. 5), 「企业社保转交税务部门已暂缓」.

11) 财经(2019. 1. 29), 「民营企业生存环境亟待改善」.

12) 经济日报(2018. 11. 2), 「总书记亲自为民营企业发了这些红包!」.

민영기업이 당면한 어려움과 기타 문제에 대해 청취함.

- 동 좌담회에는 제조, 인터넷, 의약, 환경, 과학기술 등 분야의 54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 기업세 수 △ 자금난 △ 공정한 경쟁 환경 △ 정책 실행 방식 △ 당국과 소통강화 △ 사유재산 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해 논의됨.
- 중국정부는 실질적 감세를 추진 중이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사회보장보험 등 분야에서 추가 감세조치 실시를 시사¹³⁾

표 2. 중국 지도부의 민영기업 경영환경 개선 지원 발언

시기	발표자	주요 내용
9.27	시진핑	· [랴오닝 개혁개방 이래 민영경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 계속
10.15	시진핑	· 국유 군수기업 개방 유도, 민영기업 참여와 경쟁 비율 제고
10.19	류허(刘鹤)	· [4대 필수이행 △ 기본 경제제도 견지 △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 중시 △ 정책 조치 심화 이행 △ 중소기업 및 민영기업 자생력 제고
10.21	시진핑	· 민영기업이 흔들리지 않게 지원
10.22	시진핑	· [광둥 민영기업, 중소기업 발전 위해 더 좋은 여건 조성 필요
10.22	리커창	· 경영환경 개선 노력, 기업발전 제약하는 각종 어려움 제거, 기업 신뢰 및 경쟁력 강화
10.31	시진핑	· 현재 경제는 안정 속 변화가 있고,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부분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여러 가지 소유제 경영 발전을 촉진하고, 민영기업, 중소기업의 발전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해야 함.
11.01	시진핑	· [민영기업 좌담회] 국제경제 환경 변화, 경제단계 전환, 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않음. 기업세수부담 감소, 자금난, 공정한 경쟁 환경, 정책 실행 방식 조정, 기업가 및 사유재산 보호에 대해 논의
11.08	리커창	· 정부는 양호한 경쟁 환경 조성, 민영기업 어려움 지원, 경제 운영의 합리적 구간 확립

자료: KIEP 제5회 한중경제포럼(2018. 12. 4) 자료집 재인용.

■ 국무원,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인민은행은 민영기업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대출비중 확대, 채권 보증, 대출상환 유보 등의 지원 조치를 수차례 발표함.

- 국무원은 10월 소규모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결 지원에 대한 의견을 시작으로 11, 12월에도 지속적으로 감세를 통한 민영기업 지원 조치를 제시함.
-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향후 은행권 신규대출에서 민영기업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제고시키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은행 내부 실적심사에서 민영기업의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대출 중단을 하지 않도록 함.
- 인민은행도 △ 저시건전성평가(MPA) 기준 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민영기업 대상 대출 확대 장려 △ 대출자금 규모 3,000억 위안으로 확대 △ 민영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보증 지원 △ 기업

13) 刘鹤(2018), 「民企减税再发力」, 『财经国家周刊』, 2018年第25期(12월 10일), 总第234期, p. 30.

주식에 대한 담보 대출 등을 통해 민영기업 자금 문제 해결을 지원키로 함.

- 또한 인민은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건당 100만 위안 이하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포용적 금융 실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금융 취약계층 대상 대출실적을 바탕으로 최대 1.5%p까지 기준율을 인하함.
- 국무원, 재정부는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규모 감세 조치를 추진하고, 공업정보화부, 사법부 등은 기업환경 개선 지원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세무총국은 감세와 경영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 조치를 발표함.
 - [감세] 재정부는 2018년 10월 7일에 민영기업에 대한 감세 방안과 더불어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10월 25일에는 2020년까지 매년 30억 위안의 재원을 마련해 민영기업 지원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함.
 - 이어 2019년 3월 개최된 전국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 약 2조 위안 규모의 감세 계획을 발표¹⁴⁾
 - 중국은 4월 1일부터 제조업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3%로 3%p 인하하고, 교통운송·건축·부동산 업종은 10%에서 9%로 인하함.
 - 5월 1일부터는 양로보험의 기업 부담률을 최대 16% 선까지 인하하기로 결정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영세기업(小微企业)에 보혜성 세수 감면 정책을 실시함.¹⁵⁾
 - 월 매출 10만 위안 이하의 소규모 납세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연간 100만 위안 이하 소득액 납부 기업은 25%의 소득공제, 연 납세 소득액 100만~300만 위안 기업은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며, 각각 20%의 기업소득세를 적용
 - 납세기업의 95%에 해당하는 1,798만 중소기업이 혜택을 입을 것이며, 이 중 98%는 민영기업임.¹⁶⁾
 - 개인소득세 공제액 기준을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하고, 자녀교육·주택담보대출·주택임대비용 등 6대 추가공제 항목을 2019년 1월부터 시행함.
 - [기업환경 개선] 공업정보화부는 민영기업의 전자통신 및 군수 분야 진출상의 어려움을 없애기로 결정하였으며, 사법부는 법치환경 조성, 상무부는 유통혁신, 해외 진출지지 등의 정책을 발표함.
 - [종합 정책] 국가세무총국은 2018년 11월 1) 감세와 비용 경감 2) 경영환경 개선 3) 기업 서비스 강화 4) 엄격한 법집행 5) 각종 조치의 실행률 제고 노력 등 5대 분야 26개 조항의 민영기업 지원 종합 정책을 발표하였음.¹⁷⁾

14) 中国经营网(2019. 3. 9), 「2019年计划减税降费近2万亿元 优化营商环境助力民企发展」.

15) 央广网(2019. 1. 19), 「两部门明确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政策」.

16) 人民网(2019. 1. 16), 「2019年新一轮举措:减税更大规模 降费更加明显」.

17) 中国经济网(2018. 11. 22), 「国税总局支持民营经济“26条”来了! 减税降费, 推出真金白银“硬举措”」.

표 3. 2018년 하반기 이후 발표된 주요 정부 부처의 민영기업 지원정책

정부 기관	시기	주요 내용
국무원	10.17	· 소규모 영세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자금난 해결 지원조치 심화
	10.22	· 민영기업 채권융자 지원 수단 구축, 자금난 완화 지원 ·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 증가, 직책을 이행하였지만 리스크가 발생한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 면제
	11.8	· 큰 폭의 세금인하, 민영기업과 소규모 영세기업의 자금난 개선 조치 실시
	12.3	· 제조 및 서비스업, 특히 민영기업과 소규모 영세기업 등의 실물경제 지원에 집중, 감세 확대
재정부	10.7	· 더 큰 규모의 감세와 더 뚜렷한 기업부담 경감 조치 검토
	10.25	· 2018~2020년까지 매년 30억 위안의 재원을 마련하여 소규모 영세기업 융자 보증,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하는 지역에 인센티브 제공
공업정보화부	11.4	· 중소기업 발전업무 영도소조 조율 메커니즘 촉진, 전자통신·군수 분야에 대한 민영기업의 진입 애로사항 제거
사법부	11.11	· 「민영기업발전 위한 법치환경 조성 의견」 20조 실시
상무부	11.15	· 민영기업의 유통혁신 지원, 소비확대 촉진, 우수 민영기업 해외진출 지지
국가세무총국	11.22	· 경영 상황이 어려운 민영기업의 세금 납부 연기, 사회보험료 납부방식의 안정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사회보험료의 납부비용 인하 추진 등
금융안정위원회	11.12	· 대형 상업은행, 지방은행, 보험기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민영기업을 '경시(轻视)'하는 상황을 개선, 민영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조치 마련
인민은행	10.19	· 민영기업 채권 융자 지원 및 주식 융자 지원 계획 추진
	11.7	· 민영기업 자금난, 높은 조달 비용 해결 제안
	11.9	· 민영기업 채권 융자 지원 수단 조속히 실시 노력
	11.10	· 거시건정성평가(MPA)에서 금융기관의 소규모 영세기업 대출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 추가
	11.12	· 「민영기업 및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심화 실시 의견(关于进一步深化民营和中小微企业金融服务的实施意见)」 발표
	11.15	· 금융기관의 민영기업 대출 장려
은행보험감독위원회	10.25	· 보험 자산관리회사 설립 허가, 주식 담보 유동성 리스크 해소
	11.7	· 신규 기업 대출 중 대형 은행의 민영기업 대출 1/3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 3년 후 은행의 민영기업 대출이 신규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50% 이상
	11.9	· 민영기업 상황에 맞는 신용 대출 지원 실시
	11.13	· 융자 방식 다변화를 통해 대출 적극성 개선
증권감독위원회	10.26	· 여건에 부합되는 기구가 전문적인 기업채 발행 통해 자금 모집하도록 지원, 이로써 민영기업의 자금난 및 상장회사의 증권담보 리스크 완화
	11.2	· 11개 증권사가 민영기업 유동성 리스크 해소 및 지원 위한 증권산업 공동자산 설립

자료: 李超, 宫飞(2018. 12. 9), 「中央地方联手助民企, 保就业」, 证券研究报告; 中国经济网(2018. 11. 22), 「国税总局支持民营经济“26条”来了! 减税降负, 推出真金白银“硬举措”」 등을 바탕으로 정리.

■ 중앙정부의 지침하에 각급 지방정부에서도 민영기업 대상 감세, 금융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함.

- 지역별로 저장성과 장시성은 향후 3년간 각각 기업 대상으로 5,000억 위안과 2,800억 위안 규모의 감세 계획을 수립함.
- 상하이 및 선전 증권거래소에서는 구제용 전문채권(纾困专项债)을 발행하고, 인민은행 및 북경은행 보험감독국 등은 「베이징 민영 및 소형기업 금융서비스 심화 관련 실시의견」을 발표함.
- 베이징시, 상하이시, 푸젠성, 충칭시, 안후이성 등 지방정부는 민영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각각 100억~150억 위안을 출자해 기금을 조성함.
- 산시(陝西)성과 닝샤자치구는 각각 50억 위안과 30억 위안 규모의 민영기업 구제기금 설립을 결정
- 쓰촨성, 네이멍구자치구, 지린성, 후난성 등 지방정부는 수십 개 조항을 담은 민영기업 종합 지원조치를 발표함.

표 4. 중국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민영기업 지원정책

시기	급	기관/지방정부	주요 내용
10.26	기관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 증권거래소	· 구제용 전문채권(纾困专项债) 발행
11.1	기관	중국인민은행, 북경은행 보험감독국, 북경금융업무국	· [베이징] '베이징 민영 및 소형기업 금융서비스 심화 관련 실시의견'
11.3	기관	공상업연합회(工商联)	· [베이징] 민영기업과 금융기구의 정보교류 추진, 민영기업의 질적 발전 단계 진입 유도
11.2	성급	국유자본운영회사	· [저장] '저장성 신흥동력기금' 설립
11.3	성급	상하이시정부	· [상하이] 100억 위안의 상장회사 구제용 기금, 100억 위안의 신용 및 담보대출 제공, 100억 위안의 담보 기금 확대
11.5	성급	장쑤성정부	· [장쑤] 28조항의 조치를 통해 실물경제의 질적 발전 지원
11.7	성급	은행간 시장거래상협회	· [저장] '저장 민영기업 채권 융자수단 협력 계약' 체결
11.9	기관	농업은행 산둥분행	· [산둥]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민영기업 자금난 해소
11.11	성급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	· [상하이] 금융기구가 소형기업에 제공하는 대출 금리 평균 1%p 인하
11.11	성급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	· [상하이] '민영기업 채권 융자지원 수단' 발행 방안
11.12	성급	광저우 인민대표 상임위원회	· [광저우] 민영경제 발전 지원의 구체적인 실천
11.13	성급	베이징 시장	· [베이징]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 발표, 기업부담 경감 정책 실시, 민영기업 자금난 완화
11.14	기관	선전 증권거래소	· 창업판 개혁, 런턴거래소 및 토론토거래소 등과의 협력 심화
11.14	성급	공상업연합회	· [헤이룽장] 성내 민영기업, 특히 중소 민영기업의 채무 연체 현황 통계 시작
11.15	성급	성급 시장관리감독위	· [허베이] '경영 자격증 감소, 허가증 감소(减证照, 压许可)'
11.20	성급	쓰촨성 정부	· 민영기업의 원가절감, 자금난 해소, 경쟁력 제고 등 6대 분야 20조항 의견 발표
11.26	성급	안후이성 정부	· 핵심 경쟁력 제고, 세부담 감소, 자금난 해소 등 8대 분야 30조항 의견 발표
12.13	성급	네이멍구 정부	· 26개 조항의 조치를 통해 기업 세부담 감소, 자금난 해소 등을 추진
12.19	성급	지린성 정부	· 40개 조항의 조치를 통해 체제개혁, 혁신발전, 기업 세부담 감소 등을 지원

시기	급	기관/지방정부	주요 내용
12.21	성급	후난성 정부	· 25개 조항의 조치를 통해 기업 세부담 감소, 자금난 해소, 기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
12.26	성급	푸젠성 정부	· 25개 조항의 조치를 통해 민영기업 발전공간 확대, 기업세 부담 감소 등을 추진
2019. 1.2	성급	헨진시 정부	· 19개 조항의 조치 발표
1.3	성급	충칭시 정부	· 재정투입 확대, 금융지원 확대 등의 18개 조항 조치 발표
1.4	성급	간쑤성 정부	· 기업환경 개선, 재정투입 확대, 용자서비스 강화 등 58개 조항의 조치 발표
1.7	성급	광시자치구 정부	· 55개 조항의 민영기업 지원조치 발표
1.8	성급	산시(陝西)성 정부	· 민영경제 질적 발전에 대한 의견 발표

자료: KIEP 제5회 한중경제포럼(2018. 12. 4) 자료집; 澎湃新闻(2019. 1. 9), 「22省份民营经济政策: 派发万亿减负红包, 新增近万亿贷款」를 바탕으로 정리.

3. 향후 전망

■ 중국정부가 민영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기업채 발행 확대 독려, 금융 실적 심사기준 완화 등에 나서면서 단기적으로 대출 상황이 개선되었음.

- 2018년 10월 22일 인민은행이 신용채권 용자 지원에 대해 언급한 이후 2달만인 12월 18일까지 기업채 발행액이 2달간 5배 가까이 증가하며 1,000억 위안을 돌파¹⁸⁾
- 윈드(Wind)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10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업채, 사모채권, 단기 용자채¹⁹⁾가 182건 발행되었으며, 규모는 1,111억 위안을 기록함.
- 10월 22일 이전 2달간 245억 위안의 기업채 발행과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한 수치

■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려면 구조적인 취약성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민영기업의 상당수는 은행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실제로는 은행권 대출에서 정부가 출자한 국유기업을 우선하고 한계상황에 놓이거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구조가 지속
- 최근 중국정부가 민영기업 지원확대에 대해 은행 창구 지도에 나섰지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해주고 정부기준에 우회적으로 맞추려는 사례도 있음.

18) 21世纪经济报道(2018. 12. 19), 「两个月内新融资额上破千亿 民企信用债驶入快车道」, B12면.

19) 비금융권을 통해 1년 이내 단기 혹은 3~5년짜리 중기로 자금을 용자하는 방식.

- 이에 따라 민영기업에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구조적 관행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일각에서는 민영기업의 자금 대출 상황이 어려운 것보다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여력이 부족해진 점을 지적하기도 함.²⁰⁾

■ 대규모 감세와 세율인하 등으로 인해 기업 부담이 낮아져 일자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감원 소식이 이어지면서 중국 정부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감세를 적극 추진
 - 중국정부는 감원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기업에 대해 전년 납부 실업보험료의 50%를 환급해 주기로 하고, 경영난에 빠졌으나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더 많이 환급해 주기로 함.²¹⁾
- 국가행정학원 펑차오빈(冯俏彬) 교수는 ‘민영기업 지원정책으로 소규모 기업, 자영업자, 과학기술형 기업의 조세 부담이 낮아지면 일자리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함.²²⁾

■ 또한 2019년에는 기업 경영환경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개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19년 중에 중국 직할시, 성회도시 등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환경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0년에는 전국 도시로 확대할 것으로 보임.²³⁾
- 베이징시는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 광관부(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공정성과 서비스 효율을 높인다는 의미) 개혁을 통해 지나친 행정 간섭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리우상둥(刘向东) 부연구원은 ‘지방 정부가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²⁴⁾
- 금융안정위, 국유자산위에서는 단기적으로 민영경제 발전 지원 및 국유부문의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제도개혁을 통한 경쟁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²⁵⁾
 - 2019년 1월 12일 개최된 중국경제전망 세미나에서 구성주(辜胜阻)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은 민영기업 발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활력을 줘야 하고, 불확실성 제거(稳定预期)가 필요함을 강조²⁶⁾

20) 财新周刊(2018. 11. 19), 「下篇 民企众生相」, 第45期.

21) 第一财经日报(2019. 1. 11), 「地方减税降费支持企业不裁员 稳就业关键在社保费率」.

22) 第一财经日报(2019. 1. 10), 「今年首轮2000亿元 减税政策出台」.

23) 财经国家周刊(2019. 3. 4), 「民营经济120天」, 2019年第5期.

24) 证券日报(2019. 1. 20), 「地方两会聚焦民营经济 今年下大力气改善营商环境」.

25) 财新国家周刊(2018. 11. 19), 「下篇 民企众生相」, 2018年第45期.

26) 中国经济时报(2019. 1. 15), 「第十届中国经济前瞻论坛 | 辜胜阻：民营企业稳中求进的发展机遇」.

[참고자료]

- 21世纪经济报道. 2018. 12. 19. 「两月内新融资额上破千亿 民企信用债驶入快车道」, B12면.
 财经. 2019. 1. 29. 「民营企业生存环境亟待改善」.
 财新周刊. 2018. 11. 19. 「下篇 民企众生相」, 第45期.
 第一财经日报. 2019. 1. 10. 「今年首轮2000亿元 减税政策出台」.
 第一财经日报. 2019. 1. 11. 「地方减税降费支持企业不裁员 稳就业关键在社保费率」.
 李超, 官飞. 2018. 12. 9. 「中央地方联手助民企、保就业」. 证券研究报告.
 瞭望. 2019. 1. 14. 「更大规模减税降费减多少降什么」, 总第1818期.
 刘琳. 2018. 「民企减税再发力」. 财经国家周刊. 2018年第25期, 总第234期, p. 30. (12월 10일)
 经济日报. 2018. 11. 2. 「总书记亲自为民营企业发了这些红包!」.
 澎湃新闻. 2019. 1. 9. 「22省份民营经济政策: 派发万亿减负红包、新增近万亿贷款」.
 全国工商联课题组. 2018. 12. 30. 「民营经济40年发展历程和经验研究报告」.
 人民网. 2019. 1.16. 「2019年新一轮举措: 减税更大规模 降费更加明显」.
 网易财经. 2019. 1. 5. 「企业社保转交税务部门已暂缓」.
 新华社. 2018. 11. 2. 「习近平: 在民营企业座谈会上的讲话」.
 央广网. 2019. 1. 19. 「两部门明确小微企业普惠性税收减免政策」.
 亿欧. 2018. 8. 23. 「三个月后的社保改革, 对企业有何影响?」.
 证券日报. 2019. 1. 20. 「地方两会聚焦民营经济 今年下大力气改善营商环境」.
 中国经济时报. 2019. 1. 15. 「第十届中国经济前瞻论坛 | 辜胜阻: 民营企业稳中求进的发展机遇」.
 中国经济网. 2018. 11. 22. 「国税总局支持民营经济“26条”来了! 减税降费, 推出真金白银“硬举措”」.
 KIEP 제5회 한중경제포럼(2018.12.4.) 자료집.
 CEIC Database.